

최신 ICT 이슈

Ⅲ . 손톱에 붙이는 소형 칩으로 자외선 자동 측정, 로레알의 ‘UV 센스’

◎ 최근 수년 동안 헬스케어 관련 제품을 CES 에 출품해 온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올해 CES 에서는 손톱에 붙이는 자외선 측정 칩 ‘UV 센스(Sense)’를 발표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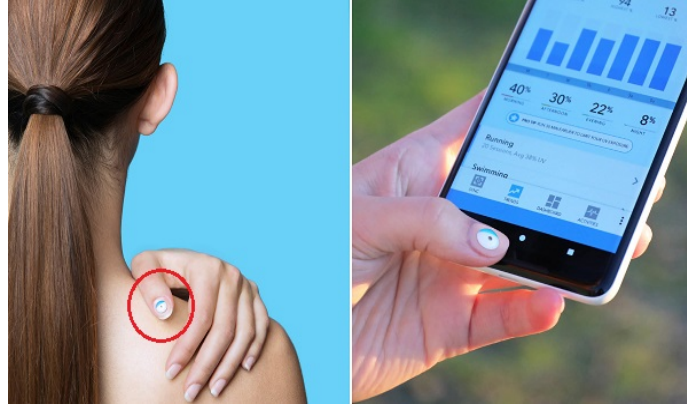
- ▶ 미디어 소개용 제품의 전시 공간인 ‘CES 언밸리드(Unvaild)’에 선보인 UV 센스는 손톱에 붙이는 원형의 작은 칩으로 자외선 측정 기능이 있는데, 자외선 양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자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임
- ▶ UV 센스는 전원이 필요 없는 손톱보다 작은 칩으로 두께 약 2mm, 직경 약 9mm 이며, 칩으로 상시 측정된 자외선의 강도는 NFC(근거리 무선 통신)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전용 앱을 통해 곧 바로 확인할 수 있음
- ▶ 로레알 그룹의 스킨케어 브랜드인 라로슈포제를 통해 발매될 이 칩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보도에 따르면 40 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, 2018년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발매를 시작으로 2019년에 전세계적으로 판매망을 확장한다는 계획

◎ 로레알은 최근 들어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6년 CES 에는 싹 형태의 자외선 측정 스티커 ‘마이 UV 패치(My UV Patch)’를 출품한 바 있음

- ▶ 마이 UV 패치는 스티커의 색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외선 양의 증가를 표시하는 방식이며, 전용 앱으로 촬영하면 자외선 양을 인식해 수치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
- ▶ 마이 UV 패치는 출시 후 전세계 37개 국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는데, 로레알의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34%가 더 자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37%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함
- ▶ 2018년 로레알이 발표한 UV 센스는 싹 모양에서 칩을 장착한 디바이스로 제품의 형상을 변경한 것인데, 마이 UV 패치는 싹 형태였기 때문에 며칠 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UV 센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576-260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

<자료> Allure

[그림 1] 로레알의 자외선 측정 칩 'UV 센스'

스는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 이용을 통해 자외선 양의 확인도 더욱 쉬워졌음

- 한편, 로레알은 2017 CES 에서 산하 케라스타즈 브랜드로 '헤어 코치(Hair Coach)'라는 세계 최초 스마트 빗을 선보인 바도 있으며, 이 제품은 빗질 세기나 모발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에게 머리 손질 조언을 해 줌

◎ 로레알 외에도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ICT 기술을 어떻게 자사 제품에 융합해 나갈 것인가가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음.

- 가령 시세이도는 2018 년 봄에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춘 맞춤형(personalized) 화장품을 제공하는 '옵튬(Optune)' 상품을 발매할 예정임
- 시세이도는 2017 년에 개인 맞춤형 파운데이션을 판매하는 마치코를 인수하는 등 화장품의 개인화 컨셉을 중심으로 기술의 응용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음

(Allure, 1. 8. & Daily Star, 1. 15.)